

## 청주공예비엔날레 디지털 아카이브 필요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Digital Archives for the Cheongju Craft Biennale

방슬기<sup>1</sup>, 김연희<sup>2\*</sup>

Seul-gi Bang<sup>1</sup>, Yeun-Hee Kim<sup>2\*</sup>

#### 요약

최근 들어 디지털 아카이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있어 기록물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시스템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시공간의 제약없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예 분야의 중요한 연구물이자 자료의 보고인 청주공예비엔날레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필요성에 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청주공예비엔날레는 근 20년간 쌓아온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아카이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예 전문가의 접근을 수월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를 분석했고, 선행 연구를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의 분류 체계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청주공예비엔날레의 현황을 살펴본 뒤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비엔날레 분야의 디지털 아카이브 발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공예 분야의 이론 형성과 확립에 일조할 것을 기대한다.

핵심어 : 공예, 디지털 아카이브, 아카이브, 청주공예비엔날레, 공예이론

#### Abstract

In recent times, digital archiving has been emerging as an important topic. Digital archiving is a system that increases the value of the use of record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it is an important factor for providing high-quality information without time and space constraints.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research the necessity of a digital archiving for the Cheongju Craft Biennale, which is an important research and data repository in the field of crafts. The Cheongju Craft Biennale needs to build a digital archiving system based on the data it has accumulated over the past 20 years to make it easier for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craft experts to access it. To this end, domestic and foreign digital archives were analyzed, and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digital archives were examined by investigating prior research. Then,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Cheongju Craft Biennale, the necessity of a digital archive system was suggest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not only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archiving in the field of biennales, but also to the form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ories in the field of crafts.

Keyword : Craft, Disital Archive, Archive, Cheongju Craft Biennale, Craft Theory

1 Department of Arts & Museum,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Graduate Student]

e-mail: titaniumcake@naver.com

2 Department of Arts & Museum,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e-mail: tofree1@kookmin.ac.kr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October 15, 2021), Review Result(1st: November 9, 2021, 2nd: November 29, 2021), Accepted(December 10, 2021), Published(December 31, 2021)



© 2021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 1. 서론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 각종 분야는 물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들은 문화예술 분야의 콘텐츠 생산과 소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s)는 시공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베이스로 기능한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청주공예비엔날레는 2018년부터 디지털 아카이브 페이지를 운영 및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디지털 아카이브 페이지를 살펴보면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단순한 연도별 나열에 지나지 않아 효율적인 검색과 원하는 정보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청주공예비엔날레의 전시 기록들이 체계적인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기록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현재 국내에서 공예의 장르를 막론하고 열리는 비엔날레로는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유일하다. 본래 미술 분야에서 2년마다 열리는 전시를 일컫는 비엔날레는 전 세계의 미술의 경향과 흐름을 보여주며, 동시대의 미술 담론을 제시하고 미술계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청주공예비엔날레의 경우 이러한 비엔날레 개념 안에서 공예의 특정한 장르에 집중하기보다는 도자, 유리, 금속, 목공, 그리고 그 외 분야까지 포괄하며 그 정체성을 확보해왔다. 따라서 청주공예비엔날레의 학술 자료와 전시 데이터들은 공예 분야에 있어 그 매체를 가리지 않고 확보된 자료이자 중요한 기록이다. 두 번째로, 청주공예비엔날레는 22년간 진행해온 역사를 지녔으며 공예 담론을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비엔날레에서 생성된 학술 자료와 전시 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아카이브된다면 공예 분야의 이론 정립과 새로운 담론 창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창출해낼 수 있다. 따라서 청주공예비엔날레의 디지털 아카이브 필요성의 연구를 위해 국내외 문화예술 관련 기관 중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 기관의 사례를 비교 및 분석하여 각 기관이 지닌 특징을 분석했다. 그리고 나서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지닌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의 개선점을 도출한 뒤 디지털 아카이브의 본질을 살펴보고, 적용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브 기술들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청주공예비엔날레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고찰

### 2.1 아카이브의 개념 및 현황

아카이브(Archives)는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선별하여 보관하는 장소, 혹은 기록물을 가리키며, 이뿐만 아니라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의미하기도 하는 포괄적인

단어이다 [1]. 즉 아카이브는 첫째, 기록물 저장소를 의미하거나, 둘째, 체계적 방식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행위, 셋째로는 자료의 활용성을 다각화하기 위한 디지털화 작업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있어 아카이브 기록물은 다양한 자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조에 따르면 ‘미술관 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따라서 미술관의 자료들은 창작자가 미술 창작 행위를 하는 과정과 결과로 생산된 작품을 포함한 일체의 생산물과, 미술 관련 조직이 수행하는 창작·기타 행위의 과정과 결과에 의한 모든 객체로 정의할 수 있다 [3].

최근에는 미술 아카이브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미술 기관들은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목록화 작업보다는 단편적 기록의 디지털화에 집중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전시나 출판 등에 기록을 활용하며 이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 기관에서는 기록 보존과 관리를 위한 표준화 방안보다는 수량화에 적합한 단편적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국내 국공립과 사립 미술관의 경우에도 아카이브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작품 아카이브에 관한 서비스와 기술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카이브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5].

## 2.2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 및 관리 체계

### 2.2.1 개념정의

디지털 아카이브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종이나 실물의 형태를 한 기록물을 전자적인 멀티미디어 정보로 변환한 것이다 [6]. 즉 디지털 아카이브는 멸실이나 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1차 자료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항구적인 기록과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디지털로 변환된 콘텐츠는 실물 콘텐츠에 비해 뛰어난 활용도를 지니고 있으며 유통, 가공, 보존 용이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7].

### 2.2.2 디지털 아카이브 관리 체계

기록 시스템의 4대 속성((ISO 15489)에는 진본성(authenticity), 무결성(integrity), 신뢰성(reliability), 이용가능성(availability)이 있다. 국가기록원의 전자 기록물 생애 주기 모형에 따르면 기록 관리에는 생산단계(업무관리시스템) → 준현용단계(기록관리시스템) → 비현용단계(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3단계의 생애 주기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기록관리에서는 ‘생산 이전단계’라는 가상의 관리단계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 과정에서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진본성, 무결성을 지닌 기록관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특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기록물의 관리 체계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8].

[표 1] 디지털 기록물 관리 체계  
 [Table 1] Digit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생산 이전 단계	생산 단계	준현용단계	비현용단계
기록관리 시스템 하부 구조 구축	생산 유통	보안 이관 검색	보존 열람 활용
영구 기록물 관리 기관 및 처리과	처리과 (업무관리시스템)	기록관 (기록관리시스템)	영구 기록물 관리 기관 (중앙연구기록 관리시스템)
-기관의 조직 및 업무 능력 분석 -기록물 처리 일정표 수립 (가치 평가를 통한 보존 기간 책정)	-신규 전자 문서의 결재 및 생성 -전자기록물 목록 등록 -분류 편철 보관 -생산현황보고 및 이관 목록 작성 -기록물 이관	-이관기록물 기본/세부 목록관리 -검색 및 활용 -수집 및 인수계획 -디지털화 -폐기, 재분류 심의 -기간별 처리일정표 관리 -기록관 시스템 관리	-생산 현황 보고 총괄 분석 -기록물 처리 일정표 총괄 -기록물 수집정책 수립 -평가 및 기술 -보존매체 수록 -기록관리정책 및 표준화 -디지털화 및 광디스크 수록 -기록물 열람 및 활용

### 3.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 연구

국내외 타 비엔날레를 연구 범위로 정하여 아카이브 현황을 살펴보고 청주공예비엔날레의 디지털 아카이브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내 비엔날레의 경우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이 아카이브 구성 요소에 준하여 구축되어 있는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외 비엔날레 뿐 아니라 아카이브 구성 요소에 따라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을 선정했다. 해외 사례의 경우 베니스 비엔날레의 ASAC를 선정했고 국내의 경우 남산예술센터와 DA-arts를 선정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분석했다.

#### 3.1 베니스 비엔날레 ASAC

1928년 베니스 비엔날레 아카이브 컬렉션의 전신이 되는 Istituto Storico d'Arte Contemporanea (Historical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라는 기관이 문을 열었고 1930년에는 Historical Archive of Contemporary Art(ASAC)로 변경되었다. 현재 ASAC는 비엔날레가 개최되기 시작한 1895년부터 수집된 베니스 비엔날레의 다양한 유산들을 보존해오고 있다. 보존, 목록 작성, 연구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은 문화유산으로서 관리되며 해외에 대여하여 전시되기도 한다. ASAC은 도서관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아카이브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 재단의 각종 기록이 문서화되어 있고, 베니스 비엔날레 활동과 관련한 건축, 시각 예술, 영화, 무용, 사진, 음악, 연극 분야와 관련된 카탈로그를 보존하고 있다. 153,000권 이상의 도서와 3,000권의 정기 간행물을 보관하고 있다. 다음의 [표 2]는 베니스 비엔날레 아카이브의 자료 구분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베니스 비엔날레 아카이브 (ASAC) 자료 구분

[Table 2] Classification of materials from the Venice Biennale archives(ASAC)

자료별 구분	내용	수량
사진 라이브러리	1895년부터 생성된 다양한 사진, 슬라이드 자료. 그 중 55,000점이 카탈로그화 되었으며 30,000점은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됨	-사진 포지티브 필름 600,000점 -슬라이드 115,000점 -사진 네거티브 필름 37,000점 -플레이트 27,309점 -원본 이미지 27,600점
필름(영화)	베니스 비엔날레가 후원하는 국제 영화 전시회 및 기타 행사의 영화 작품 및 다큐멘터리 수집품 장편, 중형 영화, 단편 영화 사이에 1,150편의 영화 중 870개의 타이틀이 디지털화	-장편, 중형, 단편 영화 1,150편
미디어	비엔날레에서 제작하고 홍보하는 각종 예술 영상	-VHS, U-Matic, Betacam, DVD, Videobine 등 사운드 디스크 4,500점 -오디오 테이프 약 3,600점 -원본비디오 8,500점 -CD-Roms 240개
비엔날레 행정 문서	1895년부터 시작된 행정 문서 (규정, 행사 관련 문서, 작가 컬렉터와의 서신, 재무재표, 예산 등)	약 3,000,000건
예술	이탈리아 및 해외 작가의 기부로 만들어진 컬렉션 무대, 의상 스케치, 인쇄물, 전시 사진, 스케치, 포스터 그래픽 등	약 3,000건
포스터	비엔날레가 추진한 행사 포스터, 프로그램 포스터 등	약 3,100부
프로젝트	1985-1991년 국제 건축 전시회와 관련된 건축 컬렉션	-
문서	1895년부터 참여한 비엔날레, 이벤트, 작가, 참여자 등과 관련된 각종 문서, 기사 등	1,100,000점

### 3.2 남산 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는 국내 공연예술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네트워크형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카이브 서비스이다. 시맨틱 데이터(Semantic Data)란, 관계망을 지닌 각각의 데이터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드러내는 데이터 네트워크이다. 아카이브 데이터 모델은 공연/행사, 인물/단체, 공간, 작품, 개념, 사건, 공연자료, 보도/연구로 총 8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중심 데이터와 맥락 데이터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 데이터를 통해 키워드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시각화하고 맥락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표 3] 남산 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 분류  
 [Table 3] Classification of digital archive data at Namsan Arts Center

데이터 분류	클래스 분류	내용	관계 데이터	수량
중심 데이터	공연/행사	남산예술센터에서 자체제작 및 공동제작한 공연 공연과 관련한 행사 교육 및 공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공연/행사, 인물/단체, 공간, 작품, 개념, 사건, 공연자료, 보도/연구	357건
	인물/단체	공연/행사에 참여한 창작자 및 스태프 작품의 원작자 정보 공연자료의 저작권자 정보	인물/단체, 공연/행사, 작품, 사건, 공연자료	3,929건
맥락 데이터	공간	공연/행사가 수행된 공간	공연/행사, 인물/단체, 사건	22건
	작품	공연의 출발점이 되거나 공연에서 선보인 개별 작품에 대한 정보	작품, 공연/행사, 인물/단체	212건
	개념	공연의 구체적인 주제 및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 정보	공연/행사	1,883건
	사건	공연/행사의 과정 중에 발생하여 공연/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 정보 남산예술센터와 관련한 사건 정보	공연/행사, 인물/단체, 공연자료, 보도/연구	48건
	공연자료	공연/행사의 과정 중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남산예술센터와 관련한 자료	공연/행사, 인물/단체, 작품, 사건	3,208건
	보도/연구	공연/행사를 다루고 있는 언론기관, 단체의 자료 공연/행사에 대한 연구 및 비평 자료 남산예술센터를 다룬 언론 및 연구 자료	공연/행사, 인물/단체	3,695건

[표 3]은 남산 예술센터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데이터를 분류한 결과이다. 각각의 데이터 모델은 공연/행사라는 중심 데이터를 기준으로 맥락 데이터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며, 이 주제들과 관련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각 클래스는 개별 내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공연 예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연과 관련된 작품도 함께 수집되며 보도자료나 비평 등 외부에서 발생한 데이터도 수집 대상이다.

### 3.3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아르코예술기록원 (구 국립예술자료원)은 1979년에 개관한 예술 전문 아카이브로, 한국 근현대 예술의 흐름을 훑아볼 수 있는 예술기록물 41만건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 중인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에는 약 20만건 이상의 예술 기록물이 소장되어있다. 각종 예술 기록물(사진, 동영상, 음악, 대본, 악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수집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개별적인 신청을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늘려나가고 있다. 한국예술디지털 아카이브의 자료 현

항을 하단의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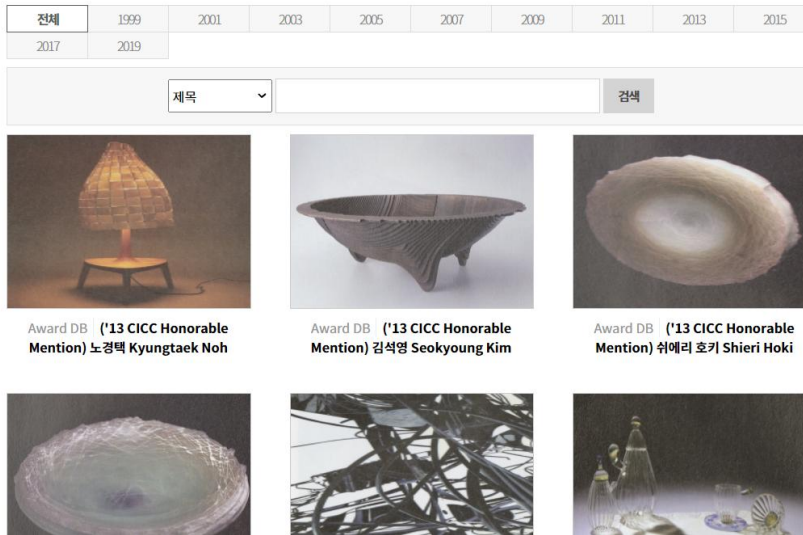
[Table 4] Current Status of Digital Archive Digital Archival Materials in Korea

구분	작품수	유형						
		이미지	동영상	음원	문서	약보	소계	
공연예술	35,598	45,854	6,150	238	29,873	-	82,115	
시각예술	미술작가	58,157	-	-	-	-	-	
	전시자료	40,804	-	-	40,804	-	40,804	
	소계	98,961	58,157	-	40,804	-	98,961	
기획 컬렉션	구술채록	6,035	-	-	-	-	-	
	무대미술	147	2,511	-	-	-	2,511	
	한국현대 음악	1,717	1,552	342	742	568	2,257	5,461
	근대희곡	44	44	-	-	-	-	44
	심의대본	6,065	-	-	-	6,065	-	6,065
	민화화본	141	799	-	-	-	-	799
	소계	14,149	10,897	342	742	8,069	2,257	22,307
합계	148,708	114,908	6,492	980	78,746	2,257	203,383	

#### 4. 청주공예비엔날레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

청주공예비엔날레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주로 역대 비엔날레의 도록에서 발췌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이 자료들이 어떠한 시스템을 따르며 구축되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2018년에는 별도의 도메인과 서버를 구축하여 아카이브 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하였으나 2021년 현재 조직위 홈페이지의 아카이브 메뉴로 통합되었다. 하단의 [그림 1]과 [그림 2]는 사이트 내 아카이브 메뉴 하단에 위치한 역대 작가 리스트로, 별도의 페이지로 분리되어 있다.

비엔날레 기관 중 구매나 기증을 통해 수집된 작품들은 한국공예관의 수장고로 반입되어 이 작품들은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공예관의 아카이브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페이지 또한 소장품의 구체적 수집 시기나 출처 등이 적혀있지 않아 기록물 관리의 기본 원칙인 출처별 원칙과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청주공예비엔날레 아카이브 페이지 화면  
 [Fig. 1] Cheongju Craft Biennale Archive Page Screen



[그림 2] 청주공예비엔날레 역대 작가 리스트 페이지 화면  
 [Fig. 2] The page screen of the artist list of Cheongju Craft Biennale.

상단 [그림 1]의 아카이브 페이지의 경우 1999년부터 각 연도별로 작가이름과 출품작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현재 개최년도인 2021년을 제외한 2019년의 정보가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목록을 클릭하면 2013년도 수상작 데이터베이스만 노출되어 있다. 내용을 클릭하면 작품의 사진, 작가명, 캡션, 제작연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를 훑어보면

미술 작품의 아카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비교적 부족한 편이다. 이외에도 청주공예비엔날레의 전시와 그에 따르는 행정 기록들은 지자체 행사인 특성상 반영구적으로 보존되어있으며 발간물로서 정리되어 있다. 비엔날레 종료 후 매회 결과보고서와 성과분석보고서가 발간된다. 결과보고서에는 조직과 기구, 추진 일정, 주요 성과 및 문제점으로부터 전시와 부대행사의 일정, 진행 방향, 결과 등이 수록되어있으며 성과분석 보고서에는 예산안부터, 수입항목, 지출항목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발간물들은 단순한 행정 기록용으로 사용되며, 디지털 아카이브의 대상으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표 5] 청주공예비엔날레 디지털 아카이브 정보 유형

[Table 5] Cheongju Craft Biennale Digital Archive Information Type

유형	연도 분류	수량
작품 이미지 (작가명, 작품, 수상 내역 포함)	1999년	30건
	2001년	90건
	2003년	240건
	2005년	232건
	2007년	44건
	2009년	63건
	2011년	71건
	2013년	30건
	2015년	33건
	2017년	259건
	2019년	190건
	합계	1282건

## 5. 결론 및 제언

많은 비엔날레 행사들이 시각 예술의 전반에 관해 다루고 있는 반면, 청주공예비엔날레의 경우 공예 분야에 천착하며 국내외적으로 유일무이한 비엔날레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청주공예비엔날레의 각종 성과와 발전은 비단 청주시만의 것이 아닌, 공예계의 일부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주공예비엔날레의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에 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해외 비엔날레 및 국내 문화예술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을 살펴봄에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에 관해 분석해보았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자료보다는 온라인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의 생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

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종 행정 관련 기록물들은 업무 환경이 변화하며 오히려 수집이나 기록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모순이 생겨나기도 한다. 기존의 결과보고서, 성과보고서와 전자문서 등에만 의지한 기록물보다는 보다 체계적 수집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수집보다는 청주공예비엔날레의 실정에 적합한 디지털 아카이브 분류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아카이브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려면 조직위 자체의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하며 도와 시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예산 지지가 가장 필요하다. 베니스 비엔날레의 ASAC의 경우, 실제로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아카이브 사업에서 경영난을 겪기도 했으나 구조조정과 지원 유형의 변경 등을 통해 기록물의 전산화가 가능했다. 지원 가능한 예산의 한계는 각 기관마다 다르나, 외부의 지원 없이 기관의 힘으로만 기록물 체계화 및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산의 범위 일정 부분에서 아카이브의 시스템 구축 마련, 디지털화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카이브 전담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며, 디지털 아카이브의 시스템 모형과 수집 방안, 절차 등을 확립하는 규정의 제정이 시급하다.

아카이브는 단순히 자료의 수집이 아니다. 아카이브는 역사적 인식을 전제로하며,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후대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 [9]. 특히 공예 분야의 연구와 이론 구축에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청주공예비엔날레의 아카이브 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명확한 기준이나 시스템이 전무하여 진행되지 않은 청주공예비엔날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외 문화예술관련 아카이브를 사례로 들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기록 수집 절차와 시스템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후 전개되는 연구들이 청주공예비엔날레의 아카이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 References

- [1] H. S. Lee, "A Case Study on Acquisition and Arrangement at Institutional Archives at an Art Museum: Focus on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ol. 18, no. 4, September 2018, pp. 1-24, doi: 10.14404/JKSARM.2018.18.4.001.
- [2] A. J. Park, "A Study on Conditions of the Domestic Graphic Design Archives and Their Systemization and Integration",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Forum*, vol. 31, December 2017, pp. 157-169, doi: 10.17548/ksaf.2017.12.30.157.
- [3] H. R. Jeong, I. H. Kim, "A Study on Management of Records of Art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vol. 20, April 2009, pp. 151-212.
- [4] J. E. Lee, J. H. Kim, "A Study on the Proposal for the Description Elements of Art Museum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vol. 46, no. 46, October 2015, pp. 45-93.
- [5] H. W. Nam, S. I. Jeong, "A Study on Image Copyright Archive Model for Museums", *The Korean Society*

- of Science & Art, vol. 23, March 2016, pp.111-122, doi: 10.17548/ksaf.2016.03.23.111.
- [6] J. M. Shin, S. J. Kwak, "A Review of Literature and Cases for Developing Digital Content Archive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24, no. 1, January 2013, pp. 305-330.
- [7] H. Kim, S. J. Ahn, I. T. Ryu, "The Pursuit of Data-based Humanities Research Methodologies: Where Digital Humanities and Archives of Old Documents Meet", *Transdisciplinary Humanities*, vol. 1, February 2018, pp. 17-61, doi: 10.37123/th.2018.1.17.
- [8] National Archives of Korea, "Digit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archives.go.kr](http://archives.go.kr), <https://www.archives.go.kr/next/manager/electronicSys.do>, (accessed September 27, 2021).
- [9] S. R. Cho, "Archiving, work of art, exhibition : curating the exhibition Allegory, Things, and Mnemonics", *Journal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vol. 10, December 2018, pp. 131-146.